

중구·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 청 원 자 : 이정도(서울시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성래미안 105-901) 외 1,543명
- 소개의원 :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 제1선거구, 교통위원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접수일자 : 2017. 2. 16.
- 회부일자 : 2017. 2. 17

2. 청원요지

-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를 대비해 시행하기 시작한 왕십리로 가변차로제가 중구 및 성동구 주민의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을 요청함

3. 소개의원 요지

- 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라 설치된 왕십리로 가변차로로 인하여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희생하고 있음
- 가변차로를 도입한 목적도 사라진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변차로 폐지와 좌회전 신호 신설은 중구,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협의중
 - 청원 구간은 차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의 통행 방향 오인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미설치 등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주변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좌회전 수요가 높은 실정임
 - 관련 기관과의 검토 회의 결과 가변차로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므로 가변차로 폐지와 이에 따른 교통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중구 및 성동구 주민의 교통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왕십리로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도로교통공단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퇴계로와 왕십리로(서울시 중구 한양공고 앞~성동구 왕십리역, 거리 약 2.2km)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가변차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설치되어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청방면 4개 차로, 왕십리역 방면 2개 차로를 운영 중이고, 그 외 시간대는 양방향 3개 차로씩 동일하게 운영 중임(붙임1 참조)
-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차로 폭¹⁾은 설계속도 60km/h 이상인 경우 3.0~3.25m를 확보해야 하고, 가변차로의 설치²⁾는 홀수 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방향별 교통량 분포가 6:4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고 가변차로의 폭은 최소 3.0m이되 가급적 3.5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 왕십리로(왕십리역 교차로~도로교통공단 교차로)는 6차로로 운영 중이고, 차로 폭은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앞 2.8~3.3m, 상왕십리역 앞 2.8~3.2m에 불과함에 따라 차선 조정을 하더라도 각 차로별 3.0m 이상의 차로 확보가 불가능한 점 등 가변차로 설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³⁾하고 있는 반면, 가변차로 운영시간(오전 7시~오전 10시) 외 양방향 교통량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 가변차로제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및 교통편의 증진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것임

【퇴계로 및 왕십리로 교통량 현황】

구 분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도심방향	1,325	2,374	2,569	2,427	1,747	1,668	1,578	1,540	1,480	1,430	1,434	1,351	1,358	1,458	1,486	1,555
외곽방향	777	852	887	969	1,407	1,448	1,498	1,495	1,458	1,455	1,582	1,598	1,608	1,616	1,599	1,464

-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개 방향에서 모두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왕십리로 상왕십리역에서 난계로 금호사거리 방면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일반 주거

1)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

2)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13.8.20., 국토교통부, p.139-140, 4-3-3 가변차로

3) 2011년 145건, 2012년 99건, 2013년 126건, 2014년 87건, 2015년 94건

지역이 밀집한 중구 신당동 및 성동구 행당동, 금호동 일대 지역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방향별 교통량이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변차로제 운영효과가 크지 않고, 차로 폭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변차로제 폐지 및 가변차로제 운영에 따라 금지되었던 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좌회전 신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구 및 성동구 주민의 교통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현재 왕십리로(왕십리역 교차로~도로교통공단 교차로)와 연계하여 가변차로를 운영 중인 퇴계로(한양공고앞 교차로~도로교통공단 교차로)의 경우 차로 수(6차로), 차로 폭(신당역 교차로 2.8~2.9m), 신당역 교차로 좌회전 금지 등 왕십리로와 도로환경 및 교통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병행하여 퇴계로의 가변차로 폐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붙임1】 퇴계로 및 왕십리로 운영현황

